

홈 > 뉴스 > 경제 > IT·과학

입력 : 2004.11.14 18:54 13' / 수정 : 2004.11.16 11:14 48'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411/200411140363.html>

## 칩 하나로 빌딩온도·포도밭 습도 한눈에 밀레니얼넷 이석우 기술담당이사 손안대고 데이터 측정... 무선센서네트워크 개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IT (정보기술)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시에 위치한 밀레니얼넷사(www.millennialnet.com)의 이석우 기술담당이사(CTO·34)는 최근미국 벤처산업계에서 떠오르는 뉴스타 중 한 명이다. 이씨가 고안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WirelessSensor Network) 기술이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꼽히기 때문. WSN이란 온도계·압력계 등 각종 센서 장비에 극소형 칩을 부착해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각종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빌딩에 온도 측정용 WSN을 구축, 에너지 비용을 30~4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WSN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낭비요소를 한눈에 파악해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미국과 한국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술이나상품은 아직 없다”면서“WSN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 이석우씨

실제 WSN은 2~3년 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 분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의료·농업·교량 보수등 응용 분야가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포도주로 유명한 미국 나파밸리에서는 포도밭에 WSN을 구축해 온도·습도 등을 세밀하게 측정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밀레니얼넷사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되자 냉·난방비 절약을 위해 밀레니얼넷사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SN은 보안·배터리소모 등 기술적 난관이 많아 고난도 분야로 꼽힌다. 이씨는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MIT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WSN 구축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고안해 지난 2000년 밀레니얼넷을 창업했다.

미국 벤처업계에서는 WSN시장을 개척한 이씨의 독창적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첨단산업 월간지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올 10월호에서 올해 젊은 혁신 기업가 100인 중 한 명으로 이씨를 꼽았다. 또 IT컨설팅회사인 프로스트앤설리번사는 지난 9월 22일 밀레니얼넷사를 올해 무선 분야 혁신기업으로 선정해 상을 주기도 했다.

이씨는“유비쿼터스 흐름을 타려면 화려한 미래상을 그리는 것보다 실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제때 내놓아야 한다”면서“WSN관련 제품은 1~2년 안에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현기자 penman@chosun.com)



Copyright (c) 2003 [chosun.com](http://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mailto: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